

2019 성탄메세지 - 망치보다 강한 보자기

1. 성탄절, 그리고 사랑

(1) 온전한 나라

[베드로전서 4:8]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질문이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히 답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세상 또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에덴과 같은 곳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나라이다. 모든 존재들이 서로의 어울림 안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다.

(2) 갈등

사랑으로 조화된 에덴은 모든 존재들이 서로의 어울림을 존중하는 가운데 존재했다. 탐욕과 욕심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이 조화로움을 산산조각 내었다. 탐욕과 욕심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했다. 탐욕이 결국 선악과를 먹게 했다. 그 결과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실제적인 갈등이 일어났다. 한 번도 부딪힘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감싸주고 존중해주지 않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서로의 존재를 파괴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그 모습은 한 번도 이 세상에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이다.

이런 갈등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아진 죄의 강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갈등 유발자'로 만든 것이고, 그 결과 바벨탑을 만들어 갈등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 해답이 내 존재를 높이고 갈등 유발자인 하나님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바로 이 모습이 사랑없는 '세상'이다. 사랑없는 세상의 모습은 '갈등'이다. 그것이 이 세상을 경쟁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세상에서 '존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모든 존재들이 나를 위해 존재할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2.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만드신다.

(1) 율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해결책이 율법이다. 율법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시기 위해서이다. 돌판에 기록해서 분명히 알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행위법'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이셨다. 자격을 주신 것이다. 그 자격에 미달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은 기준이다. 기준은 어떤 일에 대한 '양'을 보여준다. 기준 때문에 정확하다. 눈금과 같다. 측정할 수 있다. 많다, 적다, 적당하다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자녀라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완벽하다. 죄인 된 인간으로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다. 그 기준 앞에 사람은 언제나 무너져야 했다. 열심히 했는데 '하자'가 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 앞에는 '하자', '부족함', '연약함'이 보인다.

그 앞에서 결국 무너짐을 경험한다. 절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바로 그 순간이 '복음'이 실체가 되는 순간이다 (바울의 예가 그렇다). 그래서 율법은 망치와 같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작품은 쓸모없다. 부서져야 한다. 그래서 다 부순다. 결국 사람은 언제나 율법이라는 망치 앞에서 부서진다.

세상의 방법은 언제나 '부숴버리는 일'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 한다. 방해되는 모든 것은 부셔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내 나라를 세워야 한다. 그곳에 존중은 없다. 용납은 없다. 이해는 없다.

(2)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영역을 해결하셨다. 율법과 다르게 해결하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죄인의 옷을 입고 오셨다. 율법에 근거해 다 비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다. 먼저 덮으셨다. 먼저 살리셨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회복 위에서 가르쳐 주셨다.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신앙은 깨어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회개에 목적이 있지 않다. 천국이 계시되지 않는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다. 회개는 돌이킴이며 방향 전환이다. 그래서 돌아갈 목적지가 분명해야 혼돈스럽지 않은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친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그래서 중요하다. 탕자가 돌아갈 곳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의 돌이킴은 의미가 있다.

율법은 깨어짐을 말한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주는 행위의 깨어짐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율법 후에 은혜가 계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 자아의 깨어짐은 십자가이지만, 결국 은혜 안에서 내 자아는 완전히 녹게 되어있다.

3. 주먹은 보자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가위바위보의 법칙을 보자. 모든 것을 부수는 망치와 같은 주먹은 언제나 모든 것을 덮는 보자기 앞에서 진다. 마찬가지로이다. 망치는 보자기를 이길 수 없다. 행위는 은혜를 이길 수 없다.

오늘 말씀을 보자. '뜨겁게, 깊게, 사랑하자' 라고 외친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 요한복음 3:16 절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죄의 모든 권세를 녹이기 위해 오셨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자. 그냥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자. 그 뜨거움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사랑을 오늘 내 현장에서 실천하자. 오늘 내 현장과 삶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게 하자.